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10001
 Phone : 646. 832. 7397
 212. 736. 8500 (EXT 355, 384)
 Website : <https://stfrancisnyc.org/>
 Email: seoulsb@gmail.com

주임신부 : Brian J. Jordan, OFM

지도신부 : 이우희 루카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luke0829ofm@gmail.com

전교수녀 : 안 마리루시 (투스쟁포교베네딕도회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장철순 스테파노 646. 322. 2139 stfrancis.cj@gmail.com

제1독서 | 사도 8,5-8.14-17

화답송 | 시편 66(65),1-3 7 4-5.6-7 16과 20(◎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제2독서 | 1베드 3,15-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요한 14,15-21

영성체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성가 | 입당 139 예물준비 246(211)
 영성체 165(168) 파견 245

신앙고백: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미사 봉헌

연미사 지향

- 강순기 이레네 평안한 안식을 위해
- 강순기 이레네
- 강순기 이레네 평안한 안식을 위해
- 조정옥 엘리사벳, 고경덕

생미사 지향

- 이정현 헬레나 생일
- 박혜화 도미니카 영육간의 건강
- 윤순기 가멜라 영육간의 건강
- 김신욱 토마스 가족 영육간의 건강
- 김옥지 아가다 건강을 위하여
- 이미진 쇼앤 그레이스 생일과 졸업 축하
- 황영성 막달레나 영혼 육신을 위하여
- 이우희 루카 신부님, 안 마리루시 수녀님 어버이날 축하
- 강호영 안드레아, 강순자 엘리자벨 결혼 45주년 기념 축하
- 이진우 다니엘 영육간의 건강
- 김철숙 수산나 영육간의 건강
- 이중호 율리아노, 김영애 율리아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날짜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	성체 분배	복사
5월 10일	백이백	민완준	민덕미	민덕미	유종옥 이영혜	허강현 김도율
5월 17일	김유화	강호영	민재인	민재인	이기원 진서윤	한서희 김수현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대성전
청년 미사	매달 둘째 토요일 오후 4:00 소성전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유아 세례	면담 후 결정 *신청: Sr.마리루시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 Sr.마리루시
예비신자 교리	일반인을 위한 교리 *신청: Sr.마리루시
견진 교리	방문교리(환자/어르신)*신청: Sr.마리루시



Congratulation!

5월 영명축일

5.2 아타나시오 5.3 필립보 5.3 (작은)야고보
 5.14 마티아 5.22 리따 5.26 필립보네리
 5.27 캔터베리의 아우구스티노 5.31 엘리사벳

Mother's Day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사 중 어머님들을 위한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Fr.김기수 OFM 사제수품 30주년

맨하탄성당 한인공동체의 시작과 그 뿌리내림에 기반이 되어주셨던 김기수(프란치스코) 신부님의 사제수품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육간의 건강과 더욱 충만한 수도여정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일 미사 후 친교 모임

산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 분, 새로 전입오신 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재속프란치스코회 뉴욕 한국순교자형제회

(Monthly Meeting: Secular Franciscan Order of New York Korean Martyrs Fraternity)
일시: 매월 첫째 주일 12:00-5:00 PM.
장소: 아랫성당(Church of St. Francis of Assisi)
대상자: 지원자/ 입회자/ 유기서약자/ 종신서약자
문의: 718-344-9790 정기열 프란치스코

연령회 일례회

오늘 미사 후 연령회에서 김영복(아네스) 자매님을 위한 연도 봉헌이 있습니다.
시간: 11:00 AM. **장소:** 아래성당
연도신청: 646. 369. 3666(연령회장 김종선 비비안나)

2026년 상반기 영성특강 일정

5/17(주일) 특강 (11:00AM-12:30PM)	Fr. 이용호 프란치스코 OFM (작은형제회 한국관구)
----------------------------------	-----------------------------------

제2차 54일 묵주기도: 감사기도 첫날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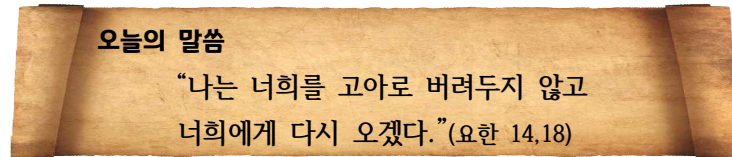
제2차 '54일 묵주기도' 모임에서 감사기도 첫날 모임을 합니다. 감사기도 첫날 묵주기도는 함께 봉헌하고 이후 개별적으로 봉헌 합니다.
 * 이 날 묵주기도 모임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날짜: 5/17(주일), 1:00PM(준비물: 묵주)
장소: 프란시스룸

2026년 청년회 하이킹 & 성지순례

청년회에서 청년들의 신앙심 고취 및 공동체 유대감 강화를 목적으로 하이킹 & 성지순례 행사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제: "너희가 나를 부르며 다가와 나에게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들어 주겠다." (예레미야서 29,12)
일시: 5/22(금) - 5/24(주일) (2박3일)
장소: Mount Minsi, Blue Army Shrine
참가비: \$230
접수마감: 5월 10일까지
문의사항: 929-660-4456(청년분과장 진현종 빈첸시오)

비대면 『성서사십주간-구약1』 수강 신청 (주관: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가톨릭성서모임에서 비대면 『성서사십주간- 구약1』 수강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읽기안내서』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이해하고, 15주간, 매주 1회, 비대면으로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회 수녀님의 강의를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생활합니다.
일시 선택: (수 오전) 9/2 동부 10AM
 (목 저녁) 9/3동부 저녁 8PM
참가비: 『성경읽기안내-구약1』 수강비 \$70 + 교재비
진도: 모세오경, 역사서
문의: 845-825-9562(안 루피나)
신청마감: 2026년 5월 31일(주일)



오늘의 말씀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요한 14,18)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주보 기부

신앙의 선조들을 찾아서

124위 복자 : 복자 손경윤 제르바시오 (1760-1802)



1760년 한양의 양인 집안에서 태어난 손경윤 제르바시오는 1790년 최필공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다. 그는 신해박해 때 두 차례나 체포되었으나 모두 석방되었고 그때마다 즉시 신앙을 회복할 만큼 열성적이었다. 회장으로 임명된 손 제르바시오는 최창현, 홍익만 등과 함께 공동체를 이끌었다. 그는 주문모 신부의 거쳐 마련에 힘썼으며,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아

주 큰 집을 매입하여 바깥채는 술집으로, 안채는 집회소로 꾸며 공동체를 보호하기도 했다. 또한 틈틈이 교리서를 필사해 나누며 복음 전파에 전념했다.

그는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피신했다가 가족이 대신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죽음을 무릅쓰고 자수했다. 혹독한 형벌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순교를 결심하였다. 그의 최후 진술은 이렇하다.

"일찍부터 천주교에 깊이 빠져 하루아침에 이를 바꾸기가 어려웠고, 일상의 고질병처럼 되었습니다. 저는 천주교 때문에 여러 번 체포된 뒤에도 나라의 금령을 무시하여 (천주교에) 미혹된 마음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교우들과 체결하여 깊이 교리를 연구하였고, 널리 교리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1802년 1월 29일, 서소문 밖에서 42세의 나이로 참수형으로 순교했다.

성화_김형주 作,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출처: <의정부주보>, No. 1181, 가해, 2026. 05. 10

투병 중이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택영알버트 이옥기수산나 이남석베드로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박재호베네딕트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홍순완비오 노혜영리오바 이병국요한

옥토
한중식 전문점

(646) 833-7864
1 E 33St. NY, NY 10016
(33가, 5애비뉴-매디슨 사이)
www.octo.nyc

WONJO
K BBQ since 1993

(212) 695-5815
23 W32St. NY, NY 10001
www.newwonjo.com

UDON Lab
Udon & Izakaya

(646) 838-5338
43W 32nd St. New York, NY 10001
www.udonlab.com @udonlab_nyc

더큰집
The Kunjip

(212) 564-8238
32 W 32St. NY, NY 10001
www.kunjip.nyc

Kim & Bob Shop
김밥, 비빔밥, 떡볶이 & More

배달 및 포장 전문, 케이터링 주문 환영
(929) 797-1212
826 9th Ave, New York, NY 10019
Between 54 & 55th Street
www.kimandbobshop.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EST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0AM-10PM / SUN: 12PM-9PM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이민/부동산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CARGOZONE
LOGISTICS INC

양서윤 플라라 | Flora Yang
marketing@czlusa.com
657-337-513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Clear Laser CITY CLINIC

얼굴 리프팅 / 색소·미백·레이저
보톡스 / 필러 / 여드름 흉터

Tel 212-697-1802 Text 917-670-7801
501 5th Ave #1601, NY, NY 10017

HAPPY HOME CARE

이지원 라파엘라 I:1 맞춤 방문 간호
Registered Nurse (347) 927-5635 (투약·검진·돌봄)
happyhomecare.rn@gmail.com

MIDTOWN SMILE DENTAL
hello@midtownsmiledental.com

임지수 마리아
(212) 532-8666
36 E 36th St. Suite 1K
(36가, 매디슨-파크 사이)

Colleen Insook Lee, M.D.
이인숙 내과

Tel: (212) 714-1170
Fax: (212) 290-9061
drleesmedical.mht@gmail.com (Bet. 32 & 33 St.)
1270 Broadway, #405 New York, NY 10001

다시 만난 신약 성경

양 한 마리

안소근 실비아 수녀(성도미니코 선교수녀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잠시 멈추어 봅시다. 루카 복음 15장에는 되찾은 양과 되찾은 은전, 그리고 되찾은 아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되찾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말씀은 마태오 복음에도 나오지만, 다른 두 비유는 루카 복음에만 들어있는 고유한 부분입니다. 특히 되찾은 아들에 대한 말씀은 루카 복음이 보여주는 하느님의 모습을 대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을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매끄럽게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에서는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루카 15,4)라는 구절이 걸림돌이 됩니다. 아흔아홉 마리를 목자 없이 내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면, 오히려 그 아흔아홉 마리 가운데 여러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한 마리를 구하자고 여러 마리를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에서는 언제나 큰아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자비로운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이었지만, 인간의 눈에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부당하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충실하게 살았던 큰아들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15,29) 없는데, 재산을 들어먹은 작은아들에게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 적지 않은 이들이 이 복음을 읽으면서, 자신이 큰아들의 위치에 있다고 느낍니다. 스스로 아버지만큼 관대하고 자비롭다고 느끼기는 쉽지 않지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충실한 큰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쉽게 확인을 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요.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에 대해 흔히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잘못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보고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하지도 않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지도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 부류에 속하는 사람은,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지요. 특히나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4,18). 큰아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자캐오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19,10)고 하십니다. 자캐오는 하늘 나라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작은아들도 하늘 나라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용서를 베푸시는 하느님의 자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사이와 세리의 비유도 루카 복음에 고유한 부분이지요 (18,9-14).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사이는, 정말로 일주일에 두 번 단식하고 십일조를 바쳤지만 의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바리사이가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다”(18,14).

되찾은 양의 비유를 기쁘게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 길 잃은 양 한 마리이고 잃었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임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루카 복음은 나를 위하여 선포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 출처: <의정부주보>, No.1181, 2026. 05월 10일



* 출처: <서울주보>, 제2611호, 2026년 5월 3일(가해)